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 부모 및 또래 변인

이 지 민*(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

Nancy Bell (Texas Tech 대학 인간발달 및 가족학과 교수)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음주나 흡연, 비행 등의 위험행동은 양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그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위험행동에 개입하는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위험행동에 개입함으로써 자신들의 건전한 발달과 미래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Compas, Hinden, & Gerhardt, 1995). 따라서 청소년들이 위험행동에 개입하고 지속하는데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을 예방하고 중재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은 어느 하나의 변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심리적, 환경적 변인들의 복합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정자, 2003).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음주 및 흡연,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개인적 특성(성별, 대처능력, 자아존중감, 사회적 능력), 위험행동(음주, 흡연, 비행)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부모와의 관계(애착, 자율성, 부모의 감독), 또래의 위험행동(위험행동, 바람직한 행동)측면에서 살펴보고 이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D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1학년(남학생 464명, 여학생 49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검증하고 독립변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위의 변인들이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상관계수는 .55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대처능력, 자아존중감, 사회적 능력과는 정적인 상관을 가지는 반면에, 또래의 위험행동과 위험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와는 부적인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립변인들이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또래의 위험행동과 흡연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와 사회적 능력, 성별의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의 총 설명력은 44.7%였다.

셋째, 독립변인들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또래의 위험행동이 가장 영향력이 있으며, 흡연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와 성별이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의 총 설명력은 18.2%였다.